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돼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6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10월 24일)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소통·화합·협력으로 '열린 비구니회' 운영"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2대 회장 본각 스님 취임



11월 13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서
1000여 사부대중 운집해 축하인사
복지·교육·세계화 등 과제로 제시
강남구에 백미 전달해 자비나눔도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소통과 화합 그리고 협력이라는 가치가 비구니승가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공의에 의해 운영되는 열려있는 전국비구니회, 6천여 비구니스님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전국비구니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제12대 회장 본각 스님〈사진〉이 11월 13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서 열린 취임법회를 통해 이 같은 취임 일성을 했다. 앞서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비구니승가의 파열음을 덮고, 모든 비구니스님들의 협력을 통해 전국비구니회 도약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이날 본각 스님은 복지체계 보완·인재육성·대사회활동·한국불교 세계화라는 4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비구니승가의 법맥을 면면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본각 스님은 "안정적인 수행환경은 '전법실현과 불법홍포'라는 출가 초발심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의료서비스와 노후주거 등에서 소외된 비구니스님들의 고충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종 연수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초심행자와 사미니의 교육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본각 스님은 또한 "사찰음식, 템플스테이의 활약을 계기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비구니스님들의 역사를 조명하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며 "장엄한 과업은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갈 든든한 도반이 필요하다.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관심과 격려를, 미전한 점에는 애정 어린 비판과 경책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본각 스님은 수행자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4년간 비구니승가의 화합과 변화를 이끌어 낼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며 "제12대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승가 앞에 놓인 난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 총무원장으로서 비구니스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어려운 점을 경청해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본각 스님 취임을 축하했다.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과 비구니 원로회 부의장 일법 스님은 본각 스님에게 4년간의 소임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알리고, 이로써 한국불교 발전의 한 축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산 스님은 "본각 스님은 평소 승가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화엄 공부에 매진한 수행자이자 학자, 존경받는 지도자로 살아왔다"며 "비구니스님들이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법 스님은 "혼탁한 세상의 가치를 바로잡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선도해 한국불교 발전의 한 축이 되도록 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외에 2015년 한일 반가사유상 교류로 인연을 맺은 일본 쥬규지(中宮寺) 주지 히노니시고우손 스님, 대만불교 비구니협진회 초대회장 경정 스님과 현 회장 상로 스님, 박양우 문체부장관(이우성 종무실장 대독),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전현희 강남구 국회의원도 축사에서 전국비구니회 발전을 기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제12대 회장 취임법회를 기념하며 강남구에 쌀 3000kg을 기탁하며 자비행을 실천, 겨울에 접어드는 길목에서 지역사회에 훈기를 불어넣었다.

취임법회에는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과 원로의원 일면 스님,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 도진 스님, 군종교구장 혜자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원종 스님, 비구니회 원로스님들, 일본 중궁사와 대만 협진회 스님 등 승가에서 1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또한 주호영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박양우 문체부장관,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법륭사·금륜사 대중이 자리했다.

한편 본각 스님 회장 취임에 앞서 선거 경쟁후보였던 前회장 육문 스님과 본각 스님 학력의혹을 제기한 상덕 스님이 비구니회 화합을 강조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비구니계는 빠르게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육문·상덕 스님은 11일 "돌이켜보면 서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대중 상호간에 반목하게 한 것은 지혜가 없고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관용과 용서의 갈림길이란 선착장에서 자비의 바다로 함께 항해해 나갈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배는 앞에서 이끌고 후배는 뒤에서 따르며, 서로 실천하고 격려와 동참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신앙의 중심 '불사리' 제자리로 환지본처하는 불사리(佛舍利)를 한 자리에서 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친견 기회가 열렸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문)은 11월 12일 국립박물관으로부터 장기대여한 사리 총 82과를 조계사 대웅전에 봉안, 고불하는 의식을 거행했다. 사진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사리를 조계사 대웅전으로 이운하는 대중들의 모습이다. 이날 봉안된 불사리는 12월 18일까지 공개 후 사찰로 돌아간다. 글=노덕현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13세기 금속활자' 개성 만월대서 발굴

국립문화재硏·남북역사학자協 심포지엄서 조사 결과 발표

2017년 北 발굴서 금속활자 청자접시에 박힌 채 발굴돼 '고금상정예문' 시기로 추정



2017년 북한 학자들이 개경 만월대서 발굴한 금속활자 '성할 선.' 출토 당시 청자접시에 박혀 있었다. 13세기 사용된 고려 금속활자로 추정된다.

13세기에 사용된 금속활자가 고려 도성 개경 만월대 발굴조사 중 출토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속활자로 간행된 최초의 책인 〈고금상정예문〉(1234~1241년) 및 〈남명천화상송증도가〉(1239년)와 같은 시기인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 남북역사학자협의회(위원장 홍순권), 고려사학회(회장 한철호)는 11월 15일 고려대 국제관에서 '고려 도성 개경 궁성 만월대' 학술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최광식 고려대 교수는 '개성 만월대(고려왕궁) 발굴조사의 성과와 과제 기조 강연'을 통해 남북한이 공동 발굴해 온 만월대 발굴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경색됐던 2017년 북한의 학자들이 진행한 단독 발굴조사에서 금속활자 '성할 선(僐)' 자 1점이 확인됐다. 새로 발굴된 금속활자는 가로 1.174cm, 세로 11.64cm, 높이 0.68cm로 출토 당시 묻혀있던 13세기 청자 속에 박혀있었다.

최 교수는 "2015년에 금속활자가 출토된 지점과 가까운 지점에서 2016년에 금속활자 4점, 2017년에 금속활자 1점이 잇달아 출토됐다. 성분 분석 결과 재질은 모두 같은 청동이었다. 2017년 출토 금속활자는 청자접시편과 함께 출토됐는데 이는 고려 중기 양식을 가졌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 학자들은 금속활자의 조성 연대를 고려청자가 제작된 12~13세기로 확정하고 있다. 이는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보다 200여 년 앞서 금속활자를 제작했다는 명확한 근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속활자는 모두 근접한 공간에서 출토됐으므로 정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더 많은 금속활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국제학계에 소개한다면 세계 학계가 주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개성 만월대 출토 금속활자의 가치'를 발표한 유부현 대진대 교수는 출토된 금속활자가 "국가가 주도해 만든 최고 수준의 활자"로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만월대 출토 금속활자는 고려가 명실상부한 금속활자 발명국임을 입증해준다"면서 "고려 금속활자를 연구하는데 시금석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의 활자 관리기관에 보관되고 있었던 활자로 추정된다. 앞으로 고려 금속활자의 대량 출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려 개경의 문화유산과 보존정책의 변화과정(이상준,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려 개경의 도성 구조와 궁성(김창현, 고려대) △개성 고려궁성 조사연구 성과와 향후과제(조은경, 국립문화재연구소) △고려 본궐 배치체계와 주요전각 위치 재검토(남창근,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출토 청자 유형과 특징(박지영,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